

었으며, 시험수의 2017년 개화 상태를 관찰하여 착과량에 따른 해거리 유무를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, 해거리가 없을 경우 착과량을 늘려서 수량과 과일 품질이 최적인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.

표 26. 수확 후 엽면시비에 따른 아리수 품종의 수량성('15)

품종/대목	수령	재식거리	전체 과일 평균 과중(g)	착과수(과)	환산수량(10a)
아리수/M.9	6	3.5*1.5	340.5	74.8	4.83

- 10a 재식 주수: 190주(3.5×1.5m 기준)

- '14 수확 후 엽면시비(8-52-17) 2회 살포(9월 중순 부터 1주일 간격)

아리수 품종의 수확 후 엽면시비 시 이듬해 착과된 과일의 과중 및 환산수량은 표 26과 같다. 수확 후 엽면시비를 9월 중순부터 1주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한 결과 전체 과일의 과중은 340.5g, 주당 착과수 74.8과, 환산수량 4.83ton으로 대과로 생산되어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. 이듬해 같은 처리를 시험수 별로 1회, 2회 처리하였을 때도 화기의 크기 및 유과의 크기, 과중이 차이가 나므로 아리수 품종은 수확 후 엽면시비(N-P-K:8-52-17)를 1~2회 하는 것이 수량 증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었다.

표 27. 수확 후 엽면시비에 따른 '아리수' 화기, 유과 및 과일 크기('16)

처리내용	꽃봉오리 ²⁾ 크기(mm)		유과 ³⁾ 크기(mm)		과중(g)
	길이	폭	종경	횡경	
무처리	9.0 a ⁴⁾	6.8 a	32.0 a	32.6 a	272 a
엽면시비 1회 처리	10.5 b	8.2 b	34.1 b	33.4 a	295 b
엽면시비 2회 처리	13.1 c	10.2 c	36.2 c	34.5 b	310 b

2) 2016.4.23. 조사

3) 2016.5.30. 조사

4)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 by T-test at P=0.05